

기록의
집을
짓다

기록의 집을 짓다

2025.10.16. — 11.28.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기념

기록의 집을 짓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잊힌 기억을 복원하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 목소리를 부여하며, 우리 사회가 놓쳐선 안 될 증거를 되살린다. 민주공원은 항일 독립운동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부산을 넘어 ‘오늘의 사회’를 연구, 교육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표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공원의 오랜 염원으로써 54,000여 점의 자료, 구술 700여 점, 미술 1,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부산 최초의 민주주의 아카이브이자 한 도시의 기억을 품은 공간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소장·보존·계승하고, 기록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매체가 되고자 한다.

이번 전시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기념 -기록의 집을 짓다>는 민주주의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자료 중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노동자대투쟁, 원폭 피해 2세 김형률 자료 등 민주화운동 관련 소장 자료와 민중미술 작품을 선별하여 소개, 기록과 기억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내고자 한다.

전시는 세 개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록의 집을 짓다’에서는 민주공원과 민주주의기록관의 설립배경, 그 안에 담긴 여정을 살펴본다. 두 번째 ‘기억과 기록’에서는 민주화운동 소장 자료와 민중미술 작품을 감상한다. 세 번째 ‘예술과 기록의 대화’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기억지도_이어지는 이야기>를 결합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억과 예술 결과물을 살펴보며 현재와 만나는 방식을 보여준다.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 올리는 것이다. 민주주의기록관은 부산을 토대로 민주주의 가치를 품고 시민과 함께 숨 쉬며 성장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사]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소장 자료 유형별 현황

2023.6.26. 기준(단위: 점)

분류	출처별 분류	전수조사 결과	합계
자료 및 사진자료	인혁당 및 기타 관련자료	902	44,612 (79.78%)
	민청학련 관련자료	948	
	1990년대 공판 자료	1,675	
	주제별 분류 자료	11,804	
	산수 이종률 관련 자료	2,164	
	한국민중미술관련 자료	4,195	
	6월항쟁 주요 자료	116	
	미문화원방화사건 자료	39	
	부마항쟁 관련 자료	9	
	노동운동 관련 자료	2,304	
	사진 자료	131(2216점)	
	자료집 및 도서	6,465	
	기타	13,860	
행정문서	회의 자료	655	9,520 (17.03%)
	개관 관련 자료	202	
	시민축구대회 자료	281	
	사업 관련 자료	1,639	
	정기총회 및 이사회 자료	201	
	민주공원 행사 관련 자료	390	
	예산 관련 자료	239	
	기타 생산 기록물 (외부 시민단체 관련 자료 有)	5,913	
미술작품	온다라 컬렉션(복본 포함)	618	1,057 (1.89%)
	기념사업회 컬렉션	50	
	부산민중미술 컬렉션	324	
	기타(출처 불분명)	65	
구술자료 (문서, 음성, 영상 다양한 유형 존재)	부마민주항쟁	388	728 (1.3%)
	부산민주시민협의회(부민협)	14	
	5.18민주화운동	156	
	6.10민주항쟁	142	
	기타	28	
총 합계		55,917	

#1. 기록의 집을 짓다

민주공원과 민주주의기록관은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워졌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염원이 모여 건립된 두 공간은 지역 민주주의 기억을 지키는 집이자, 기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자리한다. 이번 부문에서는 민주공원과 민주주의기록관이 어떤 발자취 위에 세워졌는지 설립 배경과 취지, 목적, 걸어온 길을 살펴본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 10주년을 앞둔 1989년 8월 2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1994년 사단법인화를 통해 범시민단체로 발돋움하였고,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부산민주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부마민주항쟁’을 넘어 부산의 항일독립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 부산의 모든 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개칭, 전환하였다. ‘부산민주공원 조성사업’은 1997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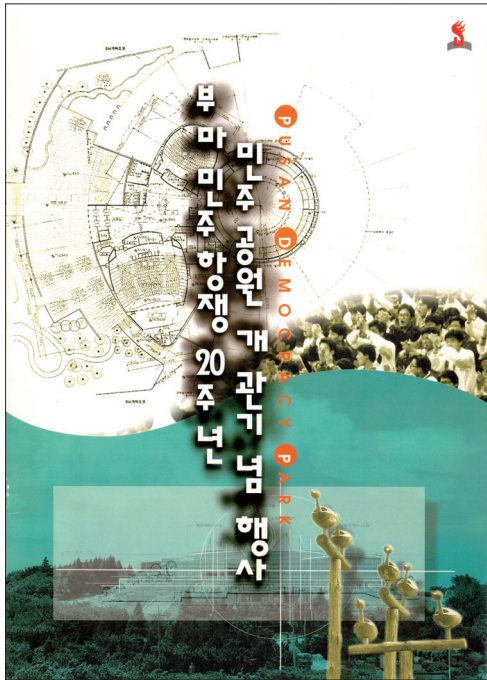
약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999년 5월 부산민주공원을 준공, 10월 16일에 개관하였다. 부산민주공원은 부지면적 20,338m² (6,152평), 민주항쟁기념관은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2m²(1,600평)로 전시실과 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정상부에 자리해 도시 풍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드러낸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과 풍경 속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고 있다.

민주공원 전경





민주항쟁기념관 개관식(1999.10.16.)



부마민주항쟁 20주년 민주공원 개관기념행사 책자 표지

민주주의기록관

민주주의기록관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관련 역사 기록물을 수집·소장, 보존 그리고 활용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부지면적 3,582m²(1,083.5평), 건축 연면적 2,191.10m²(662.8평-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보존서고, 보이는수장고, 사료전시실, 체험교육장, 보존처리실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수집형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항일독립운동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까지 이어지는 시민 참여의 역사 속에서 부산 민주화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고 민주시민교육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부산 최초의 민주화운동 기록 수집기관으로서,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며, 부·울·경 지역 시민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 전반을 포괄하는 기록을 확보해

갈 것이다. 민주주의기록관은 2019년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하였다. 같은 해 ‘민주주의기록관’으로 명칭을 확정하여 앞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수집하고 소장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기록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해 역사를 살아 있는 가치로 전환하고자 한다. 민주주의기록관은 기억을 수집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역사와 삶의 궤적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공공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민주주의기록관 전경





민주주의기록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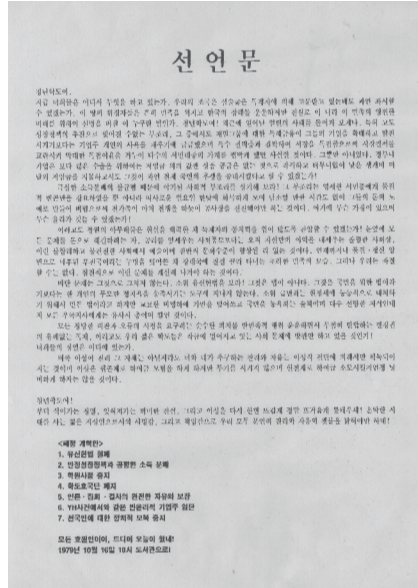
2021년 지역사회 설명회_노무현재단

#2. 기억과 기록

기억이 초석이 될 때, 기록은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이번 부분에서는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7, 8, 9월 노동자대투쟁, 김형률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증언하는 자료와 민중미술 작품을 통해 시대가 남긴 목소리를 만난다.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이야기임을 알려준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체제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자, 시위는 곧 시민들에게 퍼져나갔다. 10월 18일에는 마산으로 항쟁이 확산됐고, 이에 따라 부산(부)과 마산(마)의 이름을 따 ‘부마민주항쟁’이라 불리게 되었다. 정부는 계엄령 확대와 강경 진압으로 맞섰지만, 시민들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

부마민주항쟁은 한국현대사에서 유신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연 사건이다. 부산은 이 항쟁을 시작한 도시로서,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이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의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소장·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보여준 용기와 연대를 기억하는 기록을 통해서 과거를 증언하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의미와 책임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투쟁과 연대가 지닌 역사적 울림을 전한다.



부마항쟁 선언문(10.16.) 정광민



동래경찰서 앞을 통과하는 부산대학생 시위대 (촬영: 김탁돈)

6월민주항쟁은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일군 민주주의의 전환점이었다.

부산은 부마민주항쟁의 기억을 간직한 도시답게, 학생과 노동자, 종교인,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며 민주화 열기를 확산시켰다. 6월민주항쟁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시민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부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시대를 바꾸는 물결에 힘을 보탰고, 지금도 이 도시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와 연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수집된 6월민주항쟁의 자료를 통해 전국적인 시민 참여로 독재를 종식하고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를 전한다. 이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일군 민주주의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6.10. 충무동 로터리. 전경과의 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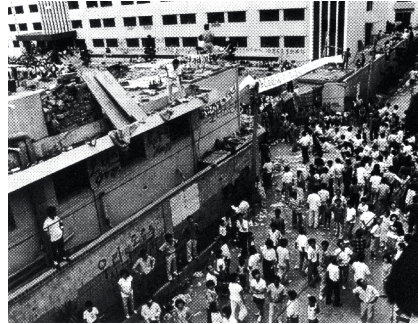


6.26. 19시. 대청동에서 시청을 향한 종교인평화대행진

1987년 6월, 전국을 뒤흔든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은 거리에서 멈추지 않았고,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공장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일어섰다.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불리는 이 시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시기이다. 3개월 동안 약 3,500건이 넘는 파업과 집회가 이어졌으며, 전국 곳곳에서 노동조합 결성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부산지역 역시 전국적 흐름에 발맞춰 뜨거운 노동운동의 현장이었다. 7, 8, 9월 노동자대투쟁은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도 역사의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다. 거리에서 울려 퍼진 민주화의 바람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며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기반을 확장했다. 민주주의기록관은 이 시기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소장·보존·계승하며, 그 정신을 기억한다. 노동자들의 열망과 투쟁이 담긴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고, 다음 세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증언으로 남는다.



7.28. 국제상사



8.19. 동양고무



9.14. 부산지역노동자 가톨릭센터에서 농성

김형률(1970-2005)은 원폭 피해자 2세로, 1970년 7월 부친 김봉대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모친 이국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선천성 면역결핍로불린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나, 면역 체계가 약해 감염병에 취약했다. 2001년 5월, 그가 가진 지병을 원폭 피해의 유전병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2002년 3월, 한국사회에 처음으로 자신이 원폭 피해 2세 환우임을 공개하며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2세 피해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2003년부터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조직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태 조사와 의료 지원을 끌어냈다. 2005년 4월 ‘한국원폭

피해자와 원자폭탄 2세 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5월 3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원폭 피해 2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헌신하였다.

민주주의기록관이 김형률의 자료를 수집·소장·보존하는 일은 원폭 피해자 2세 문제를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인권의 과제로 기록하고 계승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의 삶은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고통을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응답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반핵과 평화를 향한 실천의 이정표로 남아 있다. 이 자료는 개인의 삶을 넘어 원폭 피해자 2세의 존재와 그 투쟁을 역사 속에 남기는 역할을 한다.



2007.5.26. 한겨레신문
원폭 피해자 특별법은 국회서 잠자는데
기증: 김봉대(故 김형률 부친)



2011.4.12. 합천대야신문
원폭피해자가족 복지지원센터 개설
기증: 김봉대(故 김형률 부친)

민중미술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시대정신을 담아낸 시각적 기록이다. 회화와 판화는 억압 속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들의 삶과 투쟁을 생생히 증언하는 또 하나의 자료이다. 민주주의기록관은 문서와 구술, 사진뿐 아니라 예술작품을 함께 보존·전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다층적으로 조망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적 아카이브로서 예술 역시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기록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한국현대사, 신학철
1999, 천에 아크릴, 123×200 cm



젊은 날의 초상1, 이인철
1991, 종이에 목판화, 61×125 cm

#3. 예술과 기록의 대화

기억지도_이어지는 이야기

기억과 기록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살아 숨 쉬는 가치로 확장된다. 이번 부문은 부산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기억지도_이어지는 이야기>와 함께한다. 전시 기간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결과물로 채워질 이번 부문은 기억과 기록,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현재와 호흡하고 미래로 확장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완성된다.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우리 일상 속 소중한 순간이 기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술적 실천으로 연결한다. 참여자들이 남긴 작품과 흔적은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다리이자 기록을 통해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나누는 과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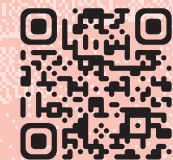


교육기간
10월 18일~11월 22일, 매주 토요일

교육시간
오후 2시~ 4시

교육장소
민주주의기록관 체험교육장

교육신청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
art.busan.go.kr/lecetuxre2/list.nm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기념
기록의 집을 짓다

2025.10.16.-11.28.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잡음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관람시간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주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시기획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교육운영

부산시립미술관

자료 및 사진 소장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

www.demopark.or.kr

